

대한전선 (001440)

고부가 수주 확대, 실적 레벨업의 전조

초고압·해저 케이블 중심 구조 전환

대한전선은 국내 최초 전선 제조업체로, 초고압 및 해저 케이블 중심의 구조적 전환을 진행 중이다. 2021년 호반그룹 편입 이후 설비 투자와 글로벌 수주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였다. 2024년 기준 초고압 케이블 비중은 21%이며, 수출 비중이 71%에 달해 유럽·미주 중심의 안정적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해저 케이블 사업은 당진 공장 증설을 통해 연 1.8만MT CAPA를 구축 중이며, 2025년부터 내부망 매출이 본격 인식될 전망이다. HVDC 시장 대응을 위한 2공장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상 최대 수주잔고, 외형 성장 가시화

2024년 수주잔고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2조 8,181억 원으로, 약 2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신규 수주도 3조 6,9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하며, 싱가포르·스웨덴·영국 등 글로벌 수주가 본격화되었다. 현재 수주잔고의 50~60%는 초고압 케이블로, 고마진 제품 비중 확대가 진행 중이다. 해저 케이블 부문에서도 영광, 안마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초고압 및 해저 케이블 모두 높은 기술 장벽과 인증을 요구하는 제품군으로, 향후 수익성 개선과 실적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4,000원 커버리지 개시

1Q25F 매출액은 8,665억원(YoY +9.9%), 영업이익은 266억원(YoY -7.6%)으로 예상된다. 초고압 케이블 수주 증가와 환율 효과로 외형은 성장하나, 산업전선 부문의 수익성 부진과 계절성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25년 연간 매출액은 3조 5,825억원(YoY +8.8%), 영업이익은 1,308억원(YoY +13.6%)으로, 하반기부터 해저 케이블과 HVDC 지중케이블 매출이 본격 반영되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2025년 예상 BPS 8,499원에 Target PBR 1.6배를 적용한 14,000원으로 제시한다.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십억원, %)

	1Q25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867	9.9	3.9	873	-0.8
영업이익	27	-7.6	21.9	32	-17.5
세전계속사업이익	21	-3.4	흑전	31	-32.4
지배순이익	14	-30.8	1,142.3	28	-49.0
영업이익률 (%)	3.1	-0.5 %pt	+0.5 %pt	3.7	-0.6 %pt
지배순이익률 (%)	1.6	-1.0 %pt	+1.5 %pt	3.2	-1.6 %pt

자료: 유안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A	2025F
매출액	2,451	2,844	3,291	3,582
영업이익	48	80	115	131
지배순이익	21	71	70	96
PER	97.2	24.4	30.2	22.2
PBR	2.5	1.8	1.6	1.3
EV/EBITDA	26.5	17.8	14.6	12.6
ROE	3.3	7.8	5.8	6.3

자료: 유안타증권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및 중요 공시는 Appendix 참조



손현정 음식료/전력기기
hyunjeong.son@yuantakorea.com

BUY (I)

목표주가 14,000원 (I)

직전 목표주가 0원

현재주가 (4/17) 11,470원

상승여력 22%

시가총액 21,386억원

총발행주식수 186,447,300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207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1,610,943주

52주 고/저 19,680원 / 10,000원

외인지분율 5.84%

배당수익률 0.00%

주요주주 호반산업 외 2인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10.0) (18.2) (5.3)

상대 (4.9) (16.4) (0.9)

절대 (달러환산) (8.2) (15.9) (7.4)

기업 개요

대한전선은 1941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전선 제조업체로, 초고압(EHV/HV) 케이블과 산업용 전선(MV/LV), 통신 케이블,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1년 호반그룹 편입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적극적인 설비 투자, 신규 수주 확대 전략을 통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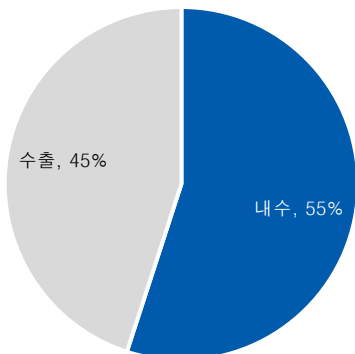
2024년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초고압 케이블 21%, 산업용 전선 17%, 소재 및 기타 52%, 통신 케이블 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소재 및 기타 부문 중심의 저수익 사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며, 최근 초고압 및 해저 케이블 부문의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고압 케이블 사업은 매출 중 수출 비중이 71%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주가 각각 30%씩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초고압 케이블 부문은 약 7%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로 기업 내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견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산업용 전선 부문의 경우 한국 시장에서 매출의 약 80%가 발생하며, 미주 지역 매출 비중이 15~2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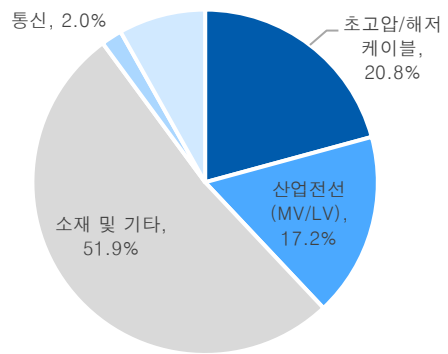
해저 케이블 사업은 2022년 당진 1공장 착공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2024년 5월 내부망(1단계) 구축 완료에 이어, 2025년 상반기 외부망(2단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2025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매출 인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2027년 HVDC 케이블 양산 체제 구축을 목표로 2공장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요를 중심으로 전개 중인 해저 케이블 사업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성장성을 높여가고 있다.

대한전선 내수 및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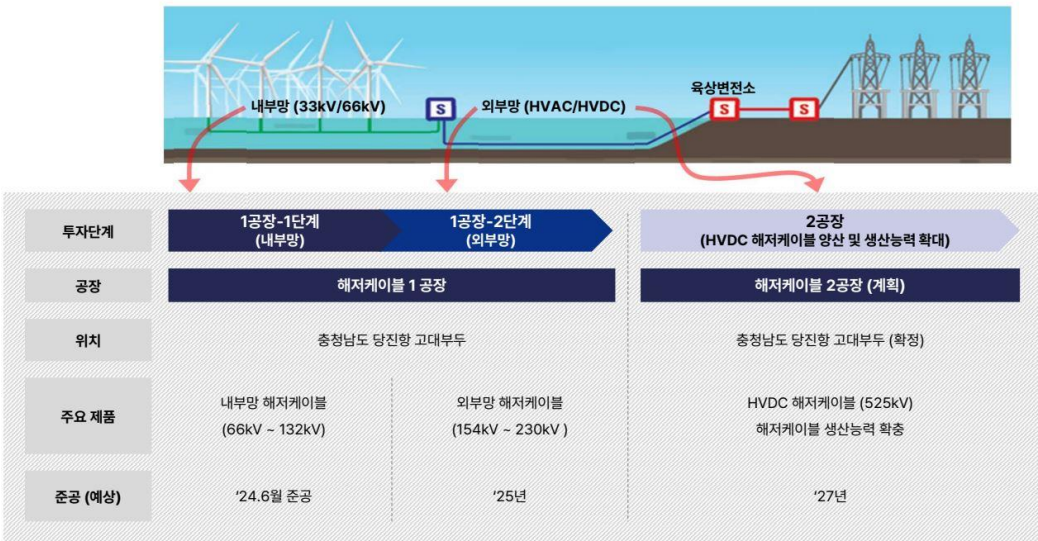
자료: 대한전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기준

대한전선 사업부문 매출 비중



자료: 대한전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기준

해저케이블 CAPA 증설 현황



자료: 대한전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해저케이블 주요 프로젝트 현황

영광-낙월 프로젝트

전남 영광군 낙월면에 위치한 송이도 인근 해역에 조성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발전기 사이를 연결하는 내부망과 신설 변전소로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공급 예정

-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 **2023년 12월**
- / 설치용량 | 364.8 MW (5.7MW x 64기)
- / 케 이 블 | EPC (호반산업 *내/외부망)
- / 제조 (대한전선 33kV), 설치 (호반산업), CLV (대한전선 PALOS호)
- / 시공기간 | ~ '25.10월 예정



안마 해상풍력 프로젝트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서쪽 약 40km 떨어진 해상에 조성되는 프로젝트로, 국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 (여의도 약 29배)

-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 **2024년 12월**
- / 설치용량 | 532 MW (14MW x 38기)
- / 케 이 블 | EPC (대한전선 *내부망)
- / 제조-설치 (대한전선 66kV), CLV (대한전선 PALOS호)
- / 시공기간 | ~ '28.6월 예정



자료: 대한전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포인트

1. 국내 해저 케이블, 2H25부터 매출 본격화

대한전선은 해저 케이블 시장 진입을 통해 중장기 외형 및 수익성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했다. 2025년 상반기 해저 1공장 2단계 외부망 설비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부망 해저 케이블의 첫 매출 인식이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영광-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통해 내부망 해저 케이블 출하가 임박한 상황이며, 이후 외부망과 대규모 턴키 프로젝트로의 확장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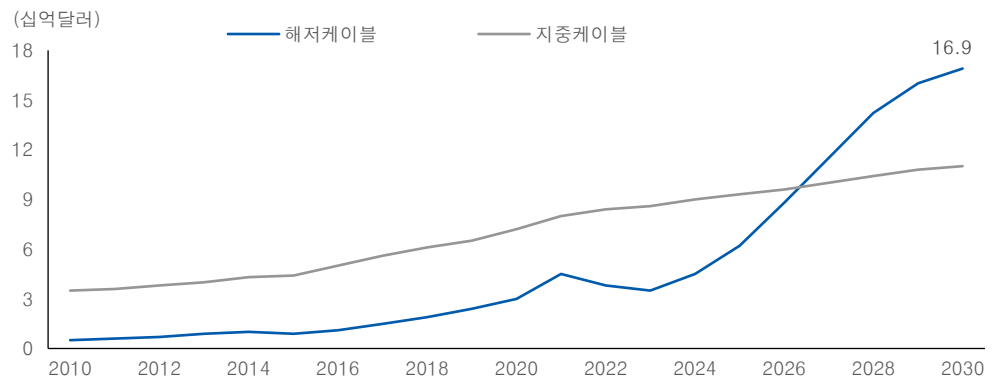
전라남도 영광군 인근 해역에서 진행되는 '영광-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내부망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1,003억원)을 체결했으며, 365MW 규모의 설비에 총 64기의 풍력 터빈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안마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532MW 대규모 프로젝트로, 수천억원 규모의 내부망 해저 케이블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전선은 해당 프로젝트의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되며 수주 기반을 넓히고 있다.

대한전선은 총 9,400억원을 투입해 해저 케이블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1.8만 MT의 연간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생산능력 대비 5배 이상 확대되는 수준으로, 국내 수요 대응은 물론 글로벌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모다. 공장은 당진에 위치한 1공장(총 투자 2,200억원)과 향후 HVDC 대응을 위한 2공장(총 투자 7,200억원)으로 구성되며, 1공장은 2024년 5월 내부망 공정(1단계)을 완료했고, 외부망 공정(2단계)은 2025년 내 완공될 예정이다. 2공장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HVAC는 물론 HVDC까지 대응 가능한 라인으로 설계되었다.

글로벌 시장 진입 전략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전선은 2025년 3월 영국 내셔널 그리드와 밴더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시장 공략의 기반을 마련했다.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은 해상 풍력발전 수요 증가로 2024년 250억 달러에서 2030년 400억 달러까지 6년간 CAGR 10.2%의 성장이 예상되며, 국내 시장 역시 2025년 2월 에너지 3법 통과로 수요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한전선은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핵심 공급업체로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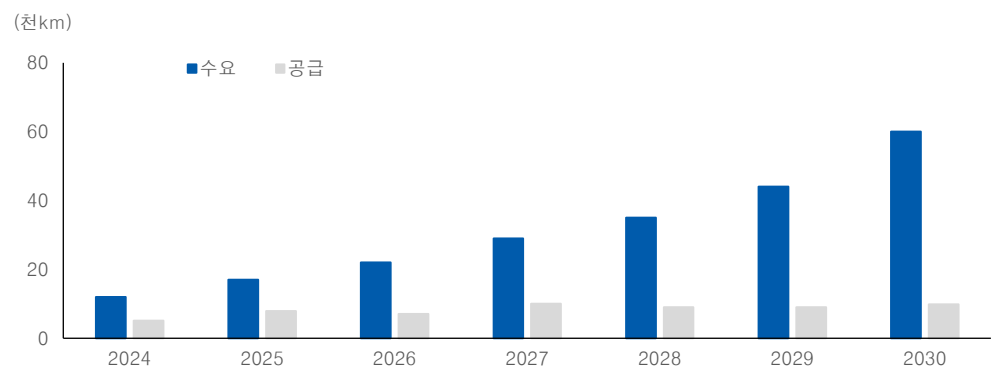
기술적인 경쟁력도 뚜렷하다. 2023년 국내 최초로 525kV HVDC 케이블(90도 조건) 개발에 성공해 한국전력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는 기존 글로벌 경쟁사의 70도 조건 제품 대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것이다. 높은 기술 장벽과 제한된 공급자 수로 인해 HVDC 해저 케이블 사업은 고마진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2027년 2공장 본격 가동 시 수주 확대에 수익성 개선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초고압 및 해저케이블 케이블 수요 전망



자료: 대한전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해저케이블 공급 부족 예상



자료: 대한전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사상 최대 수주잔고, 신규 수주 전년 대비 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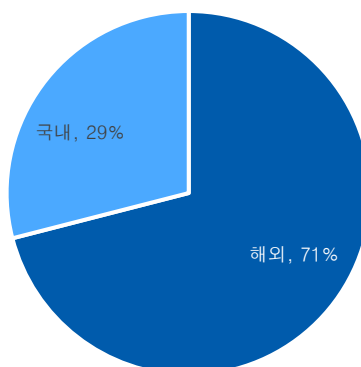
대한전선은 사상 최대 수준의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과 실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수주잔고는 2조 8,181억 원으로, 전년(1조 7,359억 원) 대비 약 62% 증가했다. 이는 약 2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중기 실적 가시성을 확보하는 핵심 지표다.

2024년 신규 수주 금액은 3조 6,9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싱가포르(7,844억 원), 스웨덴(1,100억 원), 영국(1,000억 원) 등 글로벌 수주 비중이 확대되며 지역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하더라도 2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수주를 확보하며 전반적인 수주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초고압케이블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 및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핵심 수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수주잔고의 50~60%는 초고압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고마진 제품 중심으로 수익 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초고압 케이블의 수출 비중은 71%로, 미주와 유럽향 매출이 약 60%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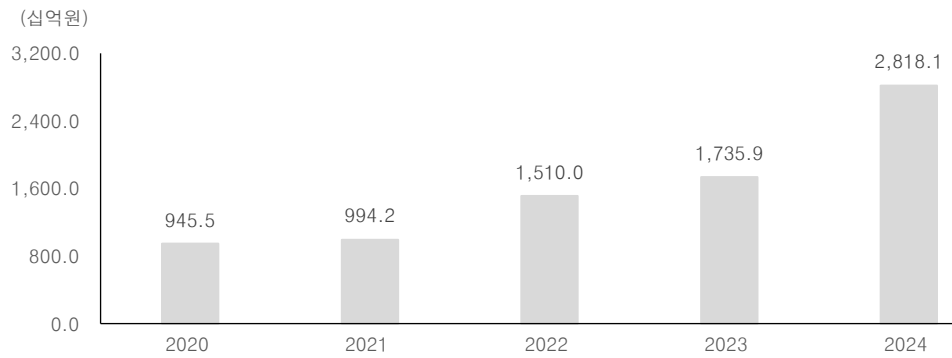
여기에 해저 케이블 수주 본격화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영광-낙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안마 해상풍력 프로젝트, 향후 국내의 HVDC 해저망 프로젝트까지 확장될 경우 수주 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초고압과 해저 케이블 모두 높은 기술 장벽을 보유한 제품군으로, 수주 확대는 곧 수익성 개선과 실적 안정성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현재의 수주 안정화 흐름은 단순한 단기 성장을 넘어, 중장기 외형 레벨업과 구조적 수익성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전선 초고압 케이블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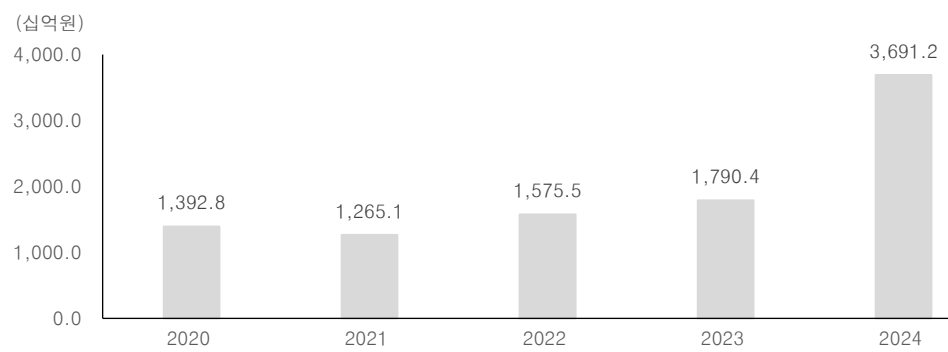
자료: 대한전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대한전선 수주잔고 추이



자료: 대한전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전력케이블 수주 중심

대한전선 신규 수주 추이



자료: 대한전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전력케이블 수주 중심

리스크 요인 및 대응 전략

1. 미국 상호관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초고압 케이블 수출 단가와 수익성에 일정 부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한 비용 분담 여지가 존재하며, 실질 반영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중장기 대응 전략으로는 미국 및 유럽 내 생산 거점 확보 가능성이 열려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여력도 확보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과거부터 현지 진출을 준비해 온 만큼, 향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수익성 방어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 리스크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구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로 인식된다.

2. 경쟁사와의 분쟁 및 법적 리스크

대한전선은 국내 경쟁사와의 ‘부스덕트 조인트 키트’ 특허 침해 소송에서 5년 8개월 만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1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었다. 다만, 해당 제품군은 연매출 50억 원 미만(전체 대비 1% 미만)으로,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한편, 해저 케이블 공장 건립과 관련해 경쟁사로부터 형사 고발이 제기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한전선은 해당 사안이 핵심 공정 기술과는 무관하며, 일부 생산 라인 배치(Layout) 등 설계상의 이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본 건은 기술 침해 여부와는 별도로 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사안으로, 당장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 절차의 특성상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은 일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실적 전망 및 투자의견

1Q25F 초고압 외형 성장, MV는 부진

2025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8,665억원(YoY +9.9%), 영업이익 266억원(YoY -7.6%, OPM 3.1%)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압 케이블 부문의 수주 증가, 우호적인 환율 및 원자재 가격 효과로 외형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산업전선 부문은 고수익 MV 프로젝트 종료와 건설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일회성 비용(성과급 등)은 2025년부터 분기별로 분산 반영돼 실적의 계절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해저 케이블 매출 본격화 기대

2025년 연간 매출액은 3조 5,825억원(YoY +8.8%), 영업이익은 1,308억원(YoY +13.6%)으로 전망된다. 수주잔고는 2조 8,181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며, 고마진 초고압·해저케이블 비중 확대가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영광-낙월 해저케이블**, **미국 LS 파워향 HVDC 지중 케이블** 등 고수익 프로젝트가 실적에 반영되며 이익률도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전선은 경쟁 심화로 수익성 방어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지 대응을 통해 개선 여지도 존재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4,000원 제시

대한전선의 목표주가를 14,000원으로 제시하며 투자의견 '매수'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는 2025년 예상 BPS 8,499원에 Target PBR 1.6배를 적용하여 산출했다. Target PBR은 국내외 Peer의 25F 평균 PBR 2배에 20% 할인하여 산출했다. 향후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구조적 수혜, 고수익 해저 케이블 매출 본격화, HVDC 시장 진입에 따라 멀티플 괴리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전선 실적테이블

(단위: 십억원)

	1Q24	2Q24	3Q24	4Q24	1Q25F	2Q25F	3Q25F	4Q25F	2024	2025F
매출액	788.5	864.4	804.4	834.0	866.5	889.4	899.2	927.4	3,291.3	3,582.5
초고압/해저케이블	138.1	143.0	192.4	210.1	179.5	185.9	259.7	283.6	683.6	908.8
산업전선(MV/LV)	142.2	150.3	142.4	131.7	147.2	135.3	145.2	134.3	566.6	562.0
소재 및 기타	428.5	471.1	418.0	390.9	449.9	475.8	438.9	407.5	1,708.5	1,772.1
통신	18.2	16.4	15.4	14.5	19.1	17.2	15.7	14.6	64.5	66.6
종속법인 및 연결 조정	61.5	83.6	36.2	86.8	70.8	75.2	39.6	87.4	268.1	272.9
% YoY	12.0%	14.6%	27.7%	10.4%	9.9%	2.9%	11.8%	11.2%	15.7%	8.8%
초고압/해저케이블	12.6%	-4.9%	35.4%	80.3%	30.0%	30.0%	35.0%	35.0%	28.6%	32.9%
산업전선(MV/LV)	2.7%	6.4%	2.5%	-15.6%	3.5%	-10.0%	2.0%	2.0%	-1.4%	-0.8%
소재 및 기타	13.7%	25.5%	38.5%	6.0%	5.0%	1.0%	5.0%	4.2%	20.1%	3.7%
통신	5.8%	-25.8%	-30.3%	-9.9%	5.0%	5.0%	2.0%	0.5%	-16.8%	3.3%
종속법인 및 연결 조정	26.6%	27.6%	43.5%	-11.6%	15.0%	-10.0%	9.2%	0.7%	12.9%	1.8%
% 매출비중										
초고압/해저케이블	20.7%	20.9%	28.9%	30.6%	23.8%	23.2%	32.9%	34.1%	20.8%	25.4%
산업전선(MV/LV)	17.0%	15.2%	16.2%	14.5%	16.0%	14.4%	14.8%	13.7%	17.2%	15.7%
소재 및 기타	51.9%	53.5%	48.8%	43.9%	50.2%	52.2%	46.4%	41.7%	51.9%	49.5%
통신	2.2%	1.9%	1.7%	1.6%	2.1%	1.9%	1.7%	1.5%	2.0%	1.9%
종속법인 및 연결 조정	8.2%	8.5%	4.4%	9.4%	7.9%	8.3%	4.3%	9.0%	8.1%	7.6%
영업이익	28.8	37.4	27.2	21.8	26.6	27.1	33.6	43.4	115.2	130.8
% YoY	62.7%	55.9%	56.3%	5.1%	-7.6%	-27.5%	23.7%	99.3%	44.3%	13.6%
% 영업이익률	3.6%	4.3%	3.4%	2.6%	3.1%	3.0%	3.7%	4.7%	3.5%	3.7%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전선 Peer 밸류에이션 테이블

(단위: 십억원, 백만 EUR, 십억 JPY)

		대한전선	일진전기	LS 에코에너지	가온전선	Prysmian (PRY)	Nexans (NEX)	NKT A/S (NKT)	Sumitomo Electric (5802)
시가총액		2,138.6	1,194.5	984.6	794.9	13,250	3,870	2,720	1,640
매출액	2024	3,291.3	1,577.2	869.0	1,727.1	17,200	7,400	2,400	4,400
	2025F	3,582.5	1,666.5	962.4	2,519.0	18,500	7,800	2,600	4,588
	2026F	3,820.9	1,837.0	1,034.0	2,603.8	19,800	8,200	2,800	4,703
영업이익	2024	115.2	79.7	44.8	45.0	1,200	550	210	260
	2025F	130.8	118.0	56.1	83.4	1,350	600	230	280
	2026F	149.5	162.5	61.7	103.7	1,500	650	250	300
영업이익률	2024	3.5%	5.1%	5.2%	2.6%	7.0%	7.4%	8.8%	5.9%
	2025F	3.7%	7.1%	5.8%	3.3%	7.3%	7.7%	8.8%	6.1%
	2026F	3.9%	8.8%	6.0%	4.0%	7.6%	7.9%	8.9%	6.4%
PER	2024	30.2	27.5	30.4	16.7	15.6	16.1	22.9	11.4
	2025F	22.2	14.7	27.9	14.9	14.7	9.9	18.1	9.9
	2026F	19.0	10.3	25.7	11.2	13.3	9.2	17.0	9.1
PBR	2024	1.6	2.6	5.1	1.2	2.1	1.8	2.3	1.2
	2025F	1.3	2.1	4.5	1.9	2.0	1.1	1.8	1.2
	2026F	1.2	1.8	3.8	1.7	1.9	1.1	1.7	1.1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대한전선 (001440) 추정재무제표 (K-IFRS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결산(12월)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매출액	2,451	2,844	3,291	3,582	3,821
매출원가	2,312	2,652	3,028	3,291	3,499
매출총이익	138	192	263	291	322
판매비	90	112	148	160	173
영업이익	48	80	115	131	149
EBITDA	77	103	144	158	175
영업외손익	-17	-14	-39	-14	-21
외환관련손익	-6	6	16	45	40
이자손익	-16	-21	-15	-11	-8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1	-5	-10
기타	6	1	-40	-43	-4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1	65	76	117	129
법인세비용	10	-6	2	15	10
계속사업순이익	22	72	74	102	119
중단사업순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2	72	74	102	119
지배지분순이익	21	71	70	96	113
포괄순이익	9	72	83	111	128
지배지분포괄이익	8	72	77	102	118

주: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만 차감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결산(12월)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영업활동 현금흐름	-47	31	7	17	33
당기순이익	22	72	74	102	119
감가상각비	26	23	29	27	25
외환손익	-9	-6	-20	-45	-40
중속,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1	5	10
자산부채의 증감	-108	-64	-97	-93	-82
기타현금흐름	21	5	20	21	1
투자활동 현금흐름	-86	-57	-387	-25	-21
투자자산	-72	68	-263	-1	-1
유형자산 증가 (CAPEX)	-13	-126	-129	0	0
유형자산 감소	2	2	0	0	0
기타현금흐름	-2	-1	4	-25	-20
재무활동 현금흐름	196	97	411	77	82
단기차입금	-262	78	52	7	6
사채 및 장기차입금	-18	13	57	0	0
자본	441	0	460	0	0
현금배당	0	0	0	0	0
기타현금흐름	35	6	-158	70	76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6	1	13	5	6
현금의 증감	69	72	44	74	100
기초 현금	148	217	289	333	407
기말 현금	217	289	333	407	507
NOPLAT	48	88	115	131	149
FCF	-60	-95	-122	17	33

자료: 유안타증권

주: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2. PER 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주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3. ROE, ROA의 경우, 자본, 자산 항목은 연초, 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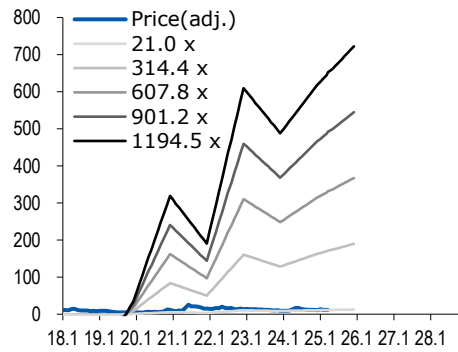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결산(12월)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유동자산	1,145	1,266	1,776	1,974	2,178
현금및현금성자산	217	289	333	408	50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28	439	491	531	566
재고자산	418	460	597	649	693
비유동자산	476	613	867	841	816
유형자산	376	482	712	685	660
관계기업 등 지분관련 자산	5	5	4	5	5
기타투자자산	27	32	28	28	28
자산총계	1,620	1,879	2,643	2,815	2,993
유동부채	488	682	920	981	1,03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02	354	458	498	532
단기차입금	82	165	142	142	142
유동성장기부채	20	20	20	20	20
비유동부채	250	243	226	227	228
장기차입금	210	225	210	210	210
사채	0	0	0	0	0
부채총계	738	925	1,147	1,208	1,259
지배지분	866	937	1,473	1,579	1,700
자본금	124	124	186	186	186
자본잉여금	755	756	1,154	1,154	1,154
이익잉여금	249	317	385	482	594
비지배지분	16	17	23	28	34
자본총계	882	953	1,496	1,607	1,734
순차입금	22	116	-80	-171	-284
총차입금	332	423	532	539	545

Valuation 지표 (단위: 원, 배, %)					
결산(12월)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EPS	160	510	409	517	605
BPS	6,299	6,772	7,934	8,499	9,154
EBITDAPS	595	747	838	847	937
SPS	18,992	20,552	19,092	19,214	20,493
DPS	0	0	0	0	0
PER	97.2	24.4	30.2	22.2	19.0
PBR	2.5	1.8	1.6	1.3	1.3
EV/EBITDA	26.5	17.8	14.6	12.6	10.8
PSR	0.8	0.6	0.6	0.6	0.6

재무비율 (단위: 배, %)					
결산(12월)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매출액 증가율 (%)	22.7	16.1	15.7	8.8	6.7
영업이익 증가율 (%)	22.1	65.7	44.3	13.6	14.3
지배순이익 증가율 (%)	-26.3	243.1	-0.2	36.9	16.9
매출총이익률 (%)	5.6	6.8	8.0	8.1	8.4
영업이익률 (%)	2.0	2.8	3.5	3.7	3.9
지배순이익률 (%)	0.8	2.5	2.1	2.7	3.0
EBITDA 마진 (%)	3.1	3.6	4.4	4.4	4.6
ROIC	4.1	9.7	10.0	8.8	10.5
ROA	1.4	4.0	3.1	3.5	3.9
ROE	3.3	7.8	5.8	6.3	6.9
부채비율 (%)	83.7	97.1	76.6	75.2	72.6
순차입금/자기자본 (%)	2.5	12.3	-5.4	-10.8	-16.7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2.3	3.0	3.7	3.8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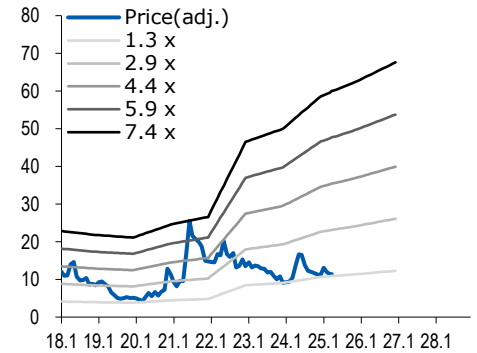
P/E band chart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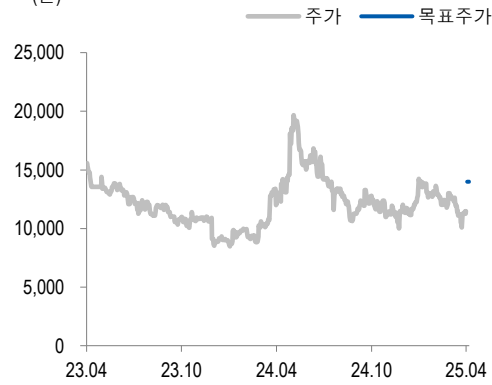
P/B band chart

(천원)



대한전선 (00144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원)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04-18	BUY	14,000	1년		
2024-05-10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3
Hold(중립)	7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5-04-18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손현정**)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